



## 독자기술로 싱글보드컴퓨터 개발한 (주)한아시스템

중소기업으로 발붙이기 어려운 정보통신·전자산업에 뛰어들어 핵심제품을 차례로 국산화하겠다는 목표아래 몇몇 젊은이들이 뚝뚝 뭉쳐 세운 (주)한아시스템. 금성사 정보기기연구소에서 기술을 익힌 신동주사장은 모토로라의 MC68040을 탑재한 싱글보드컴퓨터 KVME040을 국내 최초로 개발, 새바람을 일으켰다.



◀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전자분야의 핵심적인 제품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아래 한아시스템을 창업하게 되었다는 신동주사장.

### 젊은 연구원들이 뭉쳐 創業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이 발붙이기 에 힘든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에 자금난과 인력난까지 모두 치뤄야 하니 말이다. 더구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나 산업전자쪽에 워낙 우수한 외국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느니라 어떤 제조인도 쉽사리 뛰어 들지 못한다는게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과감히 총대를 맨 기업

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주)한아시스템(대표: 신동주)은 대기업과 연구소에서 각자의 경력을 쌓아오던 몇몇 젊은이들이 조직이란 틀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세워진 기술집약형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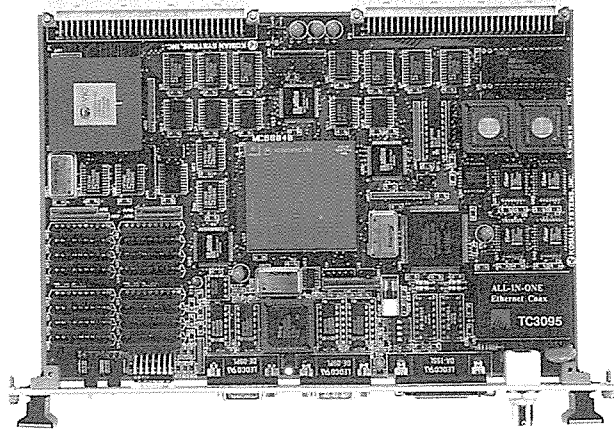
특히 한아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신사장은 집안형편이 그다지 넉넉치 못했던 대학과 대학원 시절 산업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국내 산업을 몸소 체험하

면서 컨테이너 하나 우리 기술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실정이 너무 안타까워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금성사 정보기기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던 신사장은 이곳에서 익힌 기술과 선배들로부터의 귀동냥으로 배운 짧은 사업공부를 바탕으로 무작정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작정 벌린 사업이라 순탄치 만은 않았던 지난 몇년간이지만 한아시스템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건 창업 아이디어인 통신중재장치(CMD)가 주효하였다고 신사장은 술회한다. 한국통신으로부터 망관리장비부문으로 통신중재장치(CMD)가 정식 기종으로 선정된 것이다. 한국통신 품질보증단 으로부터 인정받은 CMD가 전국의 한국통신 전화국에 65대가 납품되었다. CMD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아시스템은 그들의 애초의 창업 목표였던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전자분야의 핵심적인 제품을 차례로 국산화한다는 계획에 서서히 다가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아시스템이 전

자산업쪽에서 그들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입지를 굳히게 된 것은 모토로라의 MC 68040을 탑재한 싱글보드컴퓨터 KVME040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면서부터이다. VME버스보드는 최대 전송속도가 초당 80메가바이트로 매우 빠르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고속데이터처리를 요하는 산업용 컴퓨터나 제어장치, 통신분야 등에 널리 채택돼 사용되는 제품이다.



▲ 한아시스템의 KVME040

또한 이 제품은 국제 표준화기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게 설계되었다. 대용량의 내부캐시와 메모리관리기, 부동소수점연산기 등을 내장하고 있는 모토로라의 MC68040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보드 자체의 높은 성능도 보장하였다. 개발기간 1년에 2억원이란 개발비를 투자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이 제품은 당초 몇십억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리란 예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 성능 우수한 싱글보드 개발

이때까지 외제제품에 길들여진 국내 소비자들이 이들을 포근히 보듬어 주지 못한 것이다. 제품 성능으로 따진다면 다른 보드는 한장의 보드에 모든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고 보조 보드를 마련해 기타 기능을 추가해야 하지만 한아시스템의 보드는 단일보드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하나로 집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직렬포트를 이용해 초당 최대 2메가바이트까지의 고속 통신이 가능하며 보드 전면에서 이더넷LAN(근거리통신망)을 직접 지원할 뿐 아니라 가격면에서 저렴한 대량생

산이 가능한데도 말이다.

한아시스템의 생산제품은 크게 네트워크와 산업전자부분으로 나뉜다. 91년 회사를 창립한 이후 줄곧 신제품개발에 전념해 온 이들의 제품도 이제 어느덧 40여종에 이르고 어느 정도 기술도 축적해 놓았다. 네트워크분야에는 다시 LAN, WAN, ANM이 있는데 이중 비동기터미널이나 PC, 모뎀, 병렬프린터를 이더넷과 접속하여 사용하는 데이터통신장비인 터미널서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고 케이블 장에서 전 NODE가 DOWN되는 것을 방지하는 LAN환경을 구축하는 허브도 개발해 냈다.

이외에도 랜카드설치의 모든 절차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LANtop 102와 LANtop 103을 개발, 지금 랜카드시장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비롯 앞으로는 스위칭허브와 라우터도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아시스템에서 개발한 제품들은 하나같이 국내 최초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마케팅과 판로개척이란 점에서 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국내업체가 아닌 시스코와 같은 외국의 네트워크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은 하

기가 쉽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랜동안 국내에 들어와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왔다는 걸 제외하면 기술로 싸워서 이기면 되니까 오히려 전략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 “기술로 이기자” 전략 세워

이처럼 한아시스템의 전략무기는 바로 높은 기술력이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신사장의 똑

심이 때론 카리스마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시간과 투자에 비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회사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도 월급은 올려져 있을 정도로 따스한 면도 없지 않다. 한 사원은 전했다. 평소 인화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신사장은 가을엔 직원들과 함께 등산을 통해 끈기와 인내를 배우고 겨울엔 모두 스키를 타면서 심신을 단련한다고 한다. 이제 한아시스템 하면 제법 알아주는 데도 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 초창기 고생하던 시절보다 여러 면에서 발전을 했지만 아직 중소기업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물건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신토불이 운운하며 무조건 국산품을 애용해 달라고 호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제품이 진열대에 채 서보기도 전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외국제품에 자리를 빼앗기고 막연히 국산품은 외제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편견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라고 신사장은 힘주어 말한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